

# 제주본 『훈몽자회』의 漢字音\*

鄭 承 喆

1. 머리말
2. 誤讀과 誤寫에 의한 變改
3. 음운 변화에 의한 變改
4. 참조 문헌에 의한 變改
5. 맺음말

## 1. 머리말

이 논문은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과, 예산본 및 규장각본 『훈몽자회』의 한자음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자음과 관련하여 『훈몽자회』의 이들 이본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주본 『훈몽자회』에 초점을 두고 관찰·기술하는 동시에 그러한 차이점이 어떠한 연유에 기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각 이본들을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세 이본에서 완전히 동일한 표기를 보이는 한자음은<sup>(1)</sup>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주본 『훈몽자회』는 東萊 鄭氏의 제주도 入島 10세손인 鄭達元(1790-1843)

\* 이 논문은 1997년도 仁荷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이들이, 당시 제주 방언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저본을 그대로 옮긴 데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제주본 『훈몽자회』에는, 표제 한자에서 빠져 있는 7자(‘誠敬貞烈恭讓謹’)와 표제 한자에서 빠져 있지는 않으나 세김과 푼이 베풀어져 있지 않은 1자(‘二’)를 제외하고 총 3,352자의 표제 한자에 한자음이 달려 있다(鄭承喆, 1997:509-10). 한자음과 관련하여 이들 증에는 오각·탈각을 포함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본과 동일하지만 규장각본과 다른 것이 26자, 거꾸로 규장각본과 동일하지만 예산본과 다른 것이 49자, 두 이본 모두와 다른 것이 126자가 나타난다.

이 필사한 上中下 3권 1책(총 39張)의 轉寫本이다.<sup>(2)</sup> 전사본은 대체로 어느 문헌을 底本으로 하여 필사되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본 『훈몽자회』를 검토하기 이전에 그것이, 『훈몽자회』의 여러 이본들 중에 어느 것을 저본으로 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료를 표기의 면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제주본 『훈몽자회』가, 현존하는 『훈몽자회』의 이본들 중 예산본을 약간 참조하면서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鄭承喆 1997:511-6).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예산본 및 규장각본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을 관찰·기술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사본이 어떤 특정 문헌을 저본으로 했다 하여도 저본 그대로 필사되는 것은 아니다. 전사본에는 필사 과정과 관련하여, 誤讀과 誤寫로 인한 誤字는 물론이러니와 시대나 지역 또는 관련 참조 문헌을 달리하는 경우에 음운·형태 변화 등으로 인한 變改 또는 참조 문헌으로 인한 變改가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본 『훈몽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본 비교를 통해 예산본 및 규장각본 『훈몽자회』와 제주본 『훈몽자회』에 나타나는 한자음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려 하는 이 논문에서는 그 차이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誤讀·誤寫에 의한 것, 음운 변화에 의한 것, 참조 문헌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을 검토하기로 한다.<sup>(3)</sup>

## 2. 誤讀과 誤寫에 의한 變改

전사본은, 어떠한 이유로 저본을 잘못 읽었거나 또는 제대로 읽었더라도 필

(2) 鄭承喆(1997:508) 참조. 이 자료는 濟州에서 轉寫된 『訓蒙字會』이므로 서명을 '제주 전사본 『훈몽자회』'로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훈몽자회』는 이 자료가 유일하므로 이를 '제주본 『훈몽자회』' 또는 더 줄여 '제주본'이라 부르기로 한다.

(3) 아래 제시하는 자료에서 '예'는 예산본 『훈몽자회』, '규'는 규장각본 『훈몽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표제 한자에 대하여 기술 및 참조의 편의를 위해 규장각본 『훈몽자회』의 張次를 표시해준다. 한편 예산본이나 규장각본의 'ㅇ'은 편의상 'ㅇ'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하였을 경우에 저본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 (1) 틀(誡, 下28b) 틀(예, 규), 탁(絡, 下19a) 락(예, 규)
- (2) ㄱ. 념(饒, 下10b) 념(예, 규), 맘(黻, 下20b) 압(예, 규),  
 탐(貼, 下21b) 텨(예, 규), 짚(黠, 下14b) 집(예, 규)
- ㄴ. 강(紺, 下19b) 갑(예, 규), 룡(僚, 中5b) 른(예, 규),  
 남(讎, 下2b) 낭(예, 규), 흙(讎, 中15b) 흥(예, 규)<sup>(4)</sup>
- ㄷ. 땡(訕, 上22a) 땡(예, 규)
- (3) 펙(號, 下10a) 꺨(예) 꺨(규), 휴(洫, 中2a) 슈(예) 슈(규)

(1)은 초성에서, (2ㄱ)과 (2ㄴ)은 종성에서 誤字가 나타난 예인데 이들 誤字는 각각 ‘ㄹ’과 ‘ㅌ’, ‘ㄱ’과 ‘ㄷ’, ‘ㅇ’과 ‘ㄹ’의 자형이 유사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2ㄷ)의 ‘땡’은 제주본 『훈몽자회』에서 ‘ㅌ’이 쓰인 유일한 예인바 종성의 ‘ㄷ’을 적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은 제주본 『훈몽자회』가 한자음에 있어서도 규장각본 『훈몽자회』를 저본으로 했음을 시사해주는 예이다. 자형을 고려할 때 제주본의 ‘꺨(號), 휴(洫)’가 예산본의 ‘꺨, 슈’보다는 규장각본의 ‘꺨, 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기 때문이다.

- (4) ㄱ. 견(峴, 上3b) 현(예, 규), 광(觥, 中13a) 쩡(예, 규),  
 님(黶, 上13b) 심(예, 규), 던(礪, 中11a) 뉘(예, 규),  
 땡(澗, 上5a) 뉘(예, 규), 동(蟲, 上23a) 좡(예, 규),  
 량(狼, 上18b) 량(예, 규), 리(鯿, 上20b) 리(예, 규),<sup>(5)</sup>  
 막(蟻, 上24a) 마(예, 규), 툐(坳, 上26a) 문(예) 곤(규),<sup>(6)</sup>  
 불(否, 下31a) 부(예, 규), 슈(蒸, 上9a) 유(예, 규)
- ㄴ. 념(揜, 下23b) 념(예, 규), 칭(晴, 上25a) 칭(예) 칭(규)
- (5) ㄱ. 탁(榻, 中10b) 탐(예) 탐(규)<sup>(7)</sup>

(4) 제주본에서 ‘讎’의 한자음을 ‘흙’으로 적은 것은 그것의 세김이 ‘흙’인 것과 관련된다. 이처럼 세김의 관여로 한자음에서 오차를 보인 예는 ‘강남공왕(讎, 上13a) 완(예, 규)’에서도 발견된다.

(5) 張三植(1996)에 따르면 ‘鯿’의 현대 한자음은 ‘리’와 ‘리’, 둘로 나타난다.

(6) 규장각본의 ‘곤’은 ‘문’의 오각이다(李基文 1971:77).

(7) 규장각본의 ‘탐’은 ‘탁’의 오각이다(李基文 1971:78).

ㄴ. 박(珀, 中32a) 벽(예, 규), 빙(殯, 中35b) 빈(예, 규)

(4)와 (5)는 다른 한자 또는 한자어로부터의 유추가 한자음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한 예이다. 일종의 誤讀과 관련된 變改인 셈이다. (4)는 표제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한자의 흡에 유추되어 제주본에서 한자음이 달라진 것이다. (4ㄴ)의 '념(揜)'이나 '청(晴)'은 각각 성분 한자 '넢'이나 '靑'에 이끌린 흡인데 전자는 閑溪本 『훈몽자회』에<sup>(8)</sup> '념'으로, 후자는 예산본 『훈몽자회』에 '청'으로 나타나 동일한 흡을 보이는 이본이 현재 보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4ㄱ)의 예와 다르다. (5)는 뜻을 같이하는 다른 표제 한자 또는 새김에 나타난 한자어로부터의 유추로 제주본에서 한자음상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5ㄱ)의 '탁(榻)'은 이와 뜻을 같이하는 '탁(拓)'의 한자음에,<sup>(9)</sup> (5ㄴ)의 '박(珀), 빙(殯)'은 새김에 나타난 한자어 '호박(琥珀), 빙소(殯所)'의 한자음에 이끌린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주본의 한자음이 예산본 및 규장각본의 한자음과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誤讀이나 誤寫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 (6) ㄱ. 던(電, 上2b) 뉘(예, 규), 목(陸, 上3b) 록(예, 규),  
 태(綈, 中30b) 대(예, 규), 튜(軸, 中26b) 록(예, 규)<sup>(10)</sup>  
 ㄴ. 결(罔, 上32a) 견(예, 규), 율(毓, 上33b) 옥(예, 규),  
 흘(歆, 下10b) 흙(예, 규)<sup>(11)</sup>  
 ㄷ. 당(丈, 中13a) 당(예, 규), 눈(訥, 下28b) 눌(예, 규),  
 득(墩, 中9a) 돈(예, 규), 박(俘, 下25a) 부(예, 규),  
 반(蚌, 上23a) 방(예, 규), 붕(輻, 中26b) 복(예, 규),  
 삼(探, 下23a) 탐(예, 규), 양(躍, 下27b) 약(예, 규).<sup>(12)</sup>

(8) 閑溪本 『훈몽자회』에 대해서는 洪允杓(1985) 참조.

(9) '탑본(榻本)'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탁본(拓本)'과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다.

(10) 이들을, 이와 성분 한자를 같이하는 '震, 陸, 縮(또는 涕), 拙'의 한자음에 이끌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1) 이들의 새김은 '아들(罔), 도율(毓), 자실(歆)'이나 새김의 관여로 한자음에서 오차를 보인 것이라 할 수도 있다.

(12) 제주본 『훈몽자회』에서는 연속된 표제 한자의 새김이 동일한 경우에 흐릿하게

열(躑, 上29b) 열(예, 규), 잔(柁, 上11a) 중(예) 진(규),  
 지(踰, 下26b) 기(예, 규), 착(躑, 中16b) 착(예, 규),  
 탁(揚, 下19b) 탁(예, 규)

### 3. 음운 변화에 의한 變改

제주본 『훈몽자회』에서는 음운 변화가 관여한 결과로 표제 한자의 본음이 변한 예들이 발견된다.<sup>(13)</sup> 이는 물론, 제주본 『훈몽자회』가 예산본 및 규장각본 『훈몽자회』와 시대(또는 지역)를 달리한 터에서 비롯된 것이다.

- (7) ㄱ. 연(堧, 上12a) 연(예, 규), 유(孺, 上32b) 슈(예, 규),  
 일(日, 上1a) 실(예, 규)<sup>(14)</sup>
- ㄴ. 약(箒, 下5b) 약(예) 약(규), 유(莖, 上15a) 슈(예) 유(규),  
 육(肉, 中21b) 슈(예) 육(규), 이(珮, 中24b) 시(예) 이(규),  
 이(爾, 下24b) 시(예) 이(규)
- ㄷ. 약(弱, 下30a) 약(예) 약(규)

(7)은 ‘△’과 관련하여 제주본이, 예산본이나 규장각본과 한자음상의 차이를 보인 예이다. 앞장에서 誤字의 예로 언급한 ‘뱀(虵)’의 경우를 제외하면 제주본에서는 예산본이나 규장각본의 ‘△’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이 탈락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誤字를 제외할 때 제주본 『훈몽자회』에 ‘△’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은 이 자료를 필사하던 시기에 제주 방언도 ‘△’ > ‘ㄷ’의 음운 변화를 겪어 이미 이 방언에서 ‘△’이 비음운화한 태에 기인한다.

그런데 어떤 음운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때 개신형보다 보수형(즉

한자의 새김을 표시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양(躍)’도 바로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 한자와 후행 한자가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바 ‘躍’의 한자음 ‘양’도, 선행하는 표제 한자 ‘踰’의 한자음 ‘유’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권仁瀚(1997:333)에서는 한자음의 변화 양상이 크게 두 유형, 즉 음운 현상의 결과로 해당 글자의 본음까지 변한 것과 본음은 변하지 않았으면서 특정 위치나 어휘에서 변이음이 나타난 것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14) 제주본의 ‘나일(日)’은, ‘△’의 소실에도 불구하고 ‘날’의 ‘ㄴ’이 탈락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전 시기의 형태)을 선호하는 언어 화자는 때때로 이에 대한 의식이 지나쳐 그 음운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까지도 과도하게 교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 교정은 언어 화자가 가지는 보수형에 대한 선호 정도에 비례하여 그 출현 빈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 간격을 다소 두더라도 轉寫本에서, 특히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를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轉寫本에서 과도 교정이 흔히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을 제기해준다.<sup>(15)</sup>

- (8) ㄱ. 디(咫, 下34a) 지(也, 규), 딤(臙, 下32a) 진(也, 규),  
 탈(磈, 中6b) 질(也, 규), 띵(攄, 中15b) 질(也, 규),  
 딩(集, 中8a) 집(也, 규), 툴(七, 下34a) 칠(也, 규)  
 ㄴ. 당(障, 上3b) 장(也, 규), 당(彙, 中20b) 장(也, 규),  
 덕(赤, 中30a) 적(也, 규), 덩(鉦, 中29a) 정(也, 규),  
 텃(陡, 上25a) 접(也, 규)  
 (9) 전(奠, 下1a) 댐(也, 규), 조(鵠, 上15b) 댐(也, 규)

(8)과 (9)는 'ㄷ' > 'ㅈ', 'ㅌ' > 'ㄷ'의 'ㄷ'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제주본이, 예산본 및 규장각본과 표기상의 차이를 드러낸 예이다. 제주본 『훈몽자회』의 새김을 검토해 보면 제주본에서는, '딛질위당(棠, 上11b) 딛딜위(也, 규)'와 같은 'ㄷ'구개음화 반영 표기보다 '디도리회(攄, 中7a) 지도리(也, 규), 문뎨곤(鬪, 中7a) 문전(也, 규), ㅁ딜무(撫, 下32a) 문질(也, 규)'과 같은 과도 교정 표기를 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자음에서도 마찬가지로 (9)에서처럼 'ㄷ' > 'ㅈ'의 'ㄷ'구개음화를 겪은 표기보다 (8)에서처럼 'ㄷ'구개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sup>(16)</sup>

- (10) ㄱ. 상(養, 中21b) 상(也, 규), 소(蕭, 中18a) 쇼(也, 규).

(15) 과도 교정은 표기 층위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음성 층위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음운 변화 또는 형태 변화가 발생한 시기와 시대적 간격을 많이 둔 문헌 자료에서 그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가 나타났을 때에는 적어도, 과도 교정이 음성 층위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6) 과도 교정의 예가 '이, 야, 여' 앞에 한정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주필(1994:55)에서도 경상도 방언의 'ㄷ'구개음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과도 교정의 예가 '이, 야, 여' 앞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 췌(籬, 中27b) 췌(예, 규)  
 ㄴ. 장(牀, 中10b) 상(예, 규), 셔(鋤, 中16b) 서(예, 규),  
 준(楸, 中12a) 준(예, 규)

(10)은 치찰음 ‘ㅅ, ㅆ, ㅈ’ 아래에서의 반모음 ‘j’ 탈락과 관련된 예이다. 예 산본 및 규장각본과 비교해 볼 때 (10ㄱ)은 제주본에서 반모음 ‘j’가 탈락된 표기를, (10ㄴ)은 이에 대한 과도 교정으로 반모음이 삽입된 표기를 보여준다.<sup>(17)</sup> (10ㄱ)에서 보듯이 한자음에 관한 한 ‘ㅅ’ 아래에서 반모음의 탈락을 보인 예는 탈락되지 않으나 반모음 ‘j’ 탈락은 경구치음과 반모음 ‘j’가 결합될 수 없었던 데에 기인한 현상이므로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여겨진다. ‘작벼리적(穢, 上4a) 작벼리(예, 규), 조리조(策, 中13a) 조라(예, 규), 주전즈도(銚, 中12a) 주전즈(예, 규)’ 등에서 보듯이 제주본 『훈몽자회』의 새김에서는 ‘ㅅ’ 아래 반모음 ‘j’ 탈락을 반영한 표기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 (11) ㄱ. 북(北, 中4a) 북(예, 규), 불(拂, 下23b) 불(예, 규),  
 붕(崩, 中35a) 붕(예, 규)  
 ㄴ. 문(門, 中7a) 문(예, 규)<sup>(18)</sup>

(11)은 양순음 ‘ㅂ, ㅃ’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예인바 (11ㄱ)은 제주본에서 ‘으>우’의 원순모음화를 겪은 모습을, (11ㄴ)은 원순모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고기자불어(漁, 中2b) 고기자불(예, 규), 씨불금(鶻, 下14a) 씨불(예, 규), 자불보(捕, 下9a) 자불(예, 규)’ 등은 제주본에서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에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 (12) 로(樓, 中5a) 루(예, 규), 보(符, 上35a) 부(예, 규),  
 외(畿, 下8b) 위(예, 규)

(17) 제주본의 새김을 검토해보면 ‘j’의 탈락 표기이든 삽입 표기이든, ‘ㅅ’ 아래에서 반모음 ‘j’ 탈락과 관련된 예는 ‘문선광(閔, 中7a) 문전(예) 문전(규)’이 유일하다. 새김보다 뜯에서 보수형을 더 선호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본 『훈몽자회』에 나타나는 ‘ㅅ’ 아래 반모음 ‘j’의 탈락 현상은, 이 문헌 자료되는 시대적 간격을 조금 두고 있는 현상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18) 제주본이 ‘문문, 오라문’으로 나타난다.

(12)는 '오>우'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제주본에는 '눈시울뜸(睫, 上25a) 눈시울(예, 규)'에서 보듯이 '오>우' 변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는데 새김에 서와는 달리 한자음에 있어서는 모두, 과도 교정의 예만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sup>(19)</sup>

현대 제주 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난 명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전설모음('이, 에, 에, 위, 웨')을 말음으로 갖는다(鄭承喆 1994/1995:79-80).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 방언에서 개음절 어간말에 '이'가 첨가되는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난 데에 기인하는바 제주본 『훈몽자회』에도 '니매덩(頤, 上24b) 니마(예, 규), 니매익(額, 上24b) 니마(예, 규), 빈혜계(筭, 中24b) 빈혀(예, 규), 슬피헝(杏, 上11b) 슬고(예, 규)' 등과 같이 '이'가 첨가되는 변화를 겪은 예가 많이 나타난다.<sup>(20)</sup> 그런데 제주본 『훈몽자회』에서는 간혹, 새김뿐 아니라 한자음에서도 '이' 첨가와 관련된 표기를 발견할 수 있다.<sup>(21)</sup>

- (13) ㄱ. 례(襍, 上27b) 려(예, 규), 식(寺, 中10a) 스(예, 규),  
     채(輓, 中23b) 차(예, 규)  
     ㄴ. 려(犁, 中17a) 례(예, 규), 려(儼, 下33b) 례(예, 규),  
     로(衆, 中17a) 리(예, 규),<sup>(22)</sup> 휘(卉, 下3b) 휘(예, 규)

(19) 제주본의 '오산산(叢, 中13b) 우산(예, 규)' 또한 '오>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여두음절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20) 더 많은 경우에, '나천(川, 上4b) 내(예, 규), 나조석(夕, 上2a) 나죄(예, 규), 두드러딜(楮, 中15a) 두드레(예, 규), 디헛디(智, 中26a) 디헛(예, 규), 브지거홍(虹, 上3a) 브지개(예, 규), 벼가침(枕, 中11b) 벼개(예, 규), 부처선(扇, 中15b) 부채(예, 규), 서호리파(杷, 中17b) 서호레(예, 규), 오라문(門, 中7a) 오레(예, 규), 저저시(市, 中8a) 저제(예, 규), 화거(炬, 中15a) 화(예, 규)' 등에서처럼 '이' 첨가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를 보여줌은 물론이다.

(21) 현대국어 한자음과 비교하볼 때 '기(衙, 中8a)'는, '이' 첨가에 있어서 예산본·규장각본·제주본이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2) '犁'나 '儼'는, 예산본 및 규장각본 『훈몽자회』와 달리 『전운옥편』에 그 한자음이 '려'로 되어 있다('儼'의 경우 규장각본에는 '려'로 나타나나 이는 脫刻에 의한 것이다). 이는, '이' 첨가에 관한 한 과도 교정이 표기 층위가 아니라 음성 층위에서 일어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주기도 한다. 또한 '衆'는 제주본이 예산본보다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첨가에 대한 과도 교정을 고려할 때 제주본의 '로(衆)'가 예산본의 '리'보다는 규장각본의 '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14) 곱골곱(𪎗, 上2a) 꺾(예, 규), 축축(冊, 上34b) 칩(예, 규)<sup>(23)</sup>

위에 제시한 예에서 (13ㄱ)은 어간말 ‘이’ 첨가를 겪은 표기, (13ㄴ)은 어간말 ‘이’ 첨가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14)는 ‘이’ 첨가 또는 과도 교정이, 개음절이 아닌 폐음절 어간과 관련된 경우인데 한자음 뿐 아니라 새김에서도 평행한 표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제주본 『훈몽자회』에는, 음운 변화의 결과로 본음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변이음이 출현함으로써 예산본 및 규장각본과 차이를 보이는 한자음이 발견된다.<sup>(24)</sup>

(15) ㄱ. 역(櫪, 中19b) 렝(예, 규), 이(媿, 上31a) 리(예, 규),  
 이(𪎗, 上33a) 리(예, 규), 인(麟, 上18a) 린(예, 규),  
 인(麟, 下3a) 린(예, 규), 입(立, 下27a) 립(예, 규)  
 ㄴ. 량(𪎗, 下5b) 양(예, 규), 룡(𪎗, 上29b) 농(예, 규)  
 ㄷ. 니(裏, 下34b) 리(예, 규)

(16) 양(兩, 下34a) 량(예) 냥(규), 연(撚, 下23b) 년(예, 규)

위에 제시한 (15)와 (16)의 예들은 이른바 두음법칙으로 인한 어두 ‘ㄹ’ 또는 ‘ㄴ’의 회피 현상과 관계가 있다. 즉 ‘ㄹ’이 어두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과 ‘ㄴ’이 어두 위치에서 ‘이’나 받모음 ‘j’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에 따라 제주본 『훈몽자회』에서 ‘ㄹ’ 또는 ‘ㄴ’ 탈락을 반영한 한자음 표기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15ㄱ)은 어두 위치에 나타나는 ‘ㄹ’ 또는 ‘ㄴ’ 탈락형이, (15ㄴ)과 (15ㄷ)은 음운 변동과 관련하여 비어두 위치에 나타나는 ‘ㄹ’ 또는 ‘ㄴ’ 출현형이 한자음에서 선택된 것이다. 물론 (15ㄴ)에서 ‘ㄹ’ 출현형의 선택은 표제 한자의 새김이 말음으로 ‘ㄹ’을 갖는 것과, (15ㄷ)에서 ‘ㄴ’ 출현형의 선택은 그 새김이 말음으로 자음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15ㄴ)의 ‘어월량(𪎗)’은 ‘ㄴ’ 첨가와 유음화를, ‘곶플룡(𪎗)’은 유음화를, (15ㄷ)의 ‘숨니(裏)’는 ‘ㄹ’이 ‘ㄴ’으로

(23) ‘칩윗딜(𪎗, 上34b)’에서는 ‘칩’으로 나타난다.

(24) ‘순순(尊, 上14a) 순쑤(예, 규)’은 한자음상의 차이가 아니라 사이시옷의 기재 여부와 관련된 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되는 치조비음화를 반영한 한자음 표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6)은 어두 위치 '이'나 반모음 'j' 앞에서의 'ㄴ' 탈락과 관련된 예인바 제주본 『훈몽자회』에서는 'ㄴ' 탈락형이 선택되고 있다.<sup>(25)</sup>

#### 4. 참조 문헌에 의한 變改

표기의 면에서 제주본 『훈몽자회』를 검토해보면 제주본은, 규장각본 『훈몽자회』를 저본으로 하되 예산본 『훈몽자회』도 약간 참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자음에 관한 한 제주본은, 예산본의 한자음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sup>(26)</sup>

- (17) 경(峴, 上7a) 경(규) 견(예), 기(措, 下23b) 기(규) 기(예),  
 념(稔, 下19a) 념(규) 념(예), 도(洶, 下11a) 도(규) 도(예),  
 락(舶, 中26a) 락(규) 락(예), 사(隄, 中22a) 사(규) 사(예),  
 오(麩, 下13a) 오(규) 오(예), 제(碓, 下17a) 제(규) 제(예),  
 좌(扒, 下22b) 좌(규) 좌(예), 츠(厠, 中6a) 츠(규) 츠(예),  
 추(炊, 下12a) 추(규) 추(예), 칠(涉, 下24a) 칠(규) 칠(예),  
 피(鞞, 中27a) 피(규) 피(예), 한(儼, 下30a) 한(규) 한(예)

(17)에서 보듯이 규장각본과 예산본의 일치하지 않는 한자음에 대하여 제주본은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다르게 있다.<sup>(27)</sup> 제주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5) 제주본의 새김에서 '이을미(每, 下24b) 니을(예, 규), 입엽(葉, 下4a) 념(예, 규)'은 어두 위치 '이' 앞에서의 'ㄴ' 탈락을, '뉘압피물(吻, 上26a) 입아피(예, 규)'는 이에 대한 과도 교정을 반영해준 것이다.

(26) 이 장에서는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을 다른 문헌 자료의 한자음과 비교하면서 그 영향 관계를 추정해보는데 아래 제시한 제주본의 모든 또는 일부 한자음이 필사 당시, 제주 방언의 실제 한자음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가급적 이를 전제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아래 제시하는 자료에서 '전옥'은 『전운옥편』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일한 한자이지만 새김도 다르고 풀도 다른 異音異義字의 풀은 표시(/)를 따로 하여 구분해주기로 한다.

(27) 한자음에 있어서 제주본은 『전운옥편』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후술) (17)의 경우에는 제주본이 『전운옥편』보다는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제주본 『훈몽자회』가 한자음에서도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임을 알려준다. 『전운옥편』에 (17)의 예들은 각각 '경(峴) 기(措) 인(飡) 도

예산본의 한자음을 따르지 않는데<sup>(26)</sup> 이는 제주본이, 한자음의 필사 과정에서 예산본 『훈몽자회』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제주본 『훈몽자회』에는 誤讀과 誤寫 또는 음운 변화 등으로 인한 變改와 관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장각본과 차이를 보이는 한자음들이 발견된다. 이들 중에 많은 예들은 제주본 『훈몽자회』가, 일차적으로는 규장각본 『훈몽자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면서도 이차적으로는 다른 관련 참조 문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관찰에 의하면 제주본은, 규장각본 『훈몽자회』를 제외할 때 한자음에 관한 한 『金韻玉篇』(1796)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9)</sup> 왜냐 하면 한자음에서 제주본은 대체로 규장각본을 따르고 있지만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반영하여 표기했기 때문이다.

- (18) ㄱ. 간(趕, 下30a) 간(규, 전옥) 한(예),  
오(梧, 上10a) 오(규, 전옥) 요(예),

(淘), 빅(舶), 차(槩), 오(燻), 체(砌), 조(抓), 치(廁), 휘(炊), 찰(摻), 파(靶), 간(攪)으로 나타나 예산본의 한자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耶, 下28a) 어(규) 오(예, 전옥), 온(溫, 上33a) 온(규) 오(예, 전옥), 호(禱, 下4b) 호(규) 고(예, 전옥), 혼(斷, 上26a) 혼(규) 온(예, 전옥)'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들에서 제주본이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따른 데에는, 그 성분 한자('품, 鼎, 烹, 斤')를 같이하는 다른 표제 한자의 품이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 (28) 이때의 특정한 경우란, 예산본이 『전운옥편』과 한자음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산본·규장각본·『전운옥편』이 모두, 한자음에서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제주본이 예산본의 한자음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예는 '딩(捰, 上10a) 덩(예) 텅(규) 정(전옥), 툽(焮, 上31a) 툽(예) 룡(규) 추/축(전옥)'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도 음운 변화를 고려하면 『전운옥편』의 한자음과 관련된다고도 할 수 있다.

- (29) 제주본 『훈몽자회』는, 예산본 및 규장각본 『훈몽자회』와 『전운옥편』을 제외한 다른 문헌 자료와는 그다지 큰 관련을 갖지 않는 듯하다. 예를 들어 제주본의 필사 연대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字類註釋』(1856)은 한자음을, 『전운옥편』 및 제주본의 한자음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간(趕, 下30a) 간(규, 전옥) 한(예, 자류), 상(燻, 上33a) 상(예, 전옥) 상(규) 상(자류), 협(脇, 上25b) 협(전옥) 협(예, 규, 자류)'에서 보듯이 『자류주석』의 한자음이 『전운옥편』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주본에도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잠(賸, 下20b) 잠(규, 전옥) 담(예),  
 촌(櫛, 中35b) 촌(규, 전옥) 친(예)  
 ㄴ. 감(撼, 下17b) 감(규) 함(예) 함俗감(전옥),  
 격(覲, 中3b) 격(규) 혁(예) 혁俗격(전옥),  
 당(鎗, 中12a) 당(규) 텃(예) 당/정(전옥),  
 식(塞, 上6b) 식(규) 시(예) 식/식(전옥),  
 복(馱, 上20a) 박(예) 복(규) 박俗복(전옥),<sup>(30)</sup>  
 점(苫, 下18a) 점(규) 섬(예) 섬正점(전옥),  
 탁(拆, 下34a) 탁(규) 턱(예) 칙俗탁(전옥)

(18)은, 한자음에서 규장각본이 예산본과는 다르지만 『전운옥편』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 제주본이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따른 예이다. 이들로부터 『전운옥편』이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 표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9) ㄱ. 전(藺, 中24b) 전(예, 전옥) 전(규),  
 경(瓊, 中31b) 경(예, 전옥) 경(규),  
 국(麴, 中21b) 국(예, 전옥) 국(규),  
 던(癩, 中34a) 던(예, 전옥) 던(규),  
 덤(店, 中8a) 덤(예, 전옥) 덤(규),  
 설(舌, 上26a) 설(예, 전옥) 설(규),  
 쇼(鎗, 中28b) 쇼(예, 전옥) 쇼(규),  
 역(易, 上34a) 역(예) 역(규) 이/역(전옥)  
 ㄴ. 미(糜, 上12b) 미(예) 마(규) 미/문(전옥),  
 슈(睡, 上30b) 슈(예, 전옥) 주(규),  
 승(僧, 中2b) 승(예, 전옥) 승(규),  
 툽(妯, 上31a) 툽(예) 툽(규) 추/축(전옥)  
 ㄷ. 상(孀, 上33a) 상(예, 전옥) 상(규),  
 슈(菱, 上13b) 슈(예) 슈(규) 슈俗슈(전옥)

(18)의 예와는 달리 (19)의 예는, 예산본의 한자음이 규장각본과는 다르지만 『전운옥편』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 제주본이 예산본의 한자음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본의 한자음이 일차적으로는 규장각본의 큰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19)의 예들에서는 제주본이 예산본의 한자음을 반영하여 표기

(30) 규장각본의 '복'은 '복'의 오각이다.

한 것은 다른 문헌 자료와 비교해볼 때 규장각본이 한자음상의 특이성을 드러내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즉 (18ㄱ)과 (18ㄴ)은 脫刻 또는 오각 등에 의한 誤字, (18ㄷ)은 중국음 또는 ‘△’ 등과 관련된 음운 변화에서 비롯되어 규장각본이 독특한 한자음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제주본에서 좀더 일반적인 예산본의 한자음을 따랐다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선택에 『전운옥편』의 한자음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물론이다.

- (20) ㄱ. 경(脛, 上26b) 형(예, 규) 형(俗경(전옥),  
단(袒, 下19b) 단(예, 규) 단/탄(전옥),  
익(鷄, 上17a) 익(예) 외(규) 역(正익(전옥),  
협(脇, 上25b) 협(예, 규) 협(전옥)  
ㄴ. 라(駱, 上19k) 로(예, 규) 라(전옥)<sup>(32)</sup>

(20)의 예에서는 제주본이, 예산본이나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俗쪽·正쪽 또는 異音異義字 등과 관련되어 동일한 표제 한자에 대해 한자음이 둘로 나타나는 하나로 나타나는 관계없이 제주본에서는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의 예에서 제주본이 『전운옥편』과 한자음상의 일치성을 보인 것은, (20ㄱ)의 ‘경(脛), 단(袒), 익(鷄), 협(脇)’은 그 성분 한자 ‘胫, 袒, 益, 脇’의 쪽이 영향을 미친 데에서, (20ㄴ)의 ‘라(駱)’는 이와 성분 한자를 같이하는 다른 한자의 쪽이 영향을 미친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물론 제주본 『훈몽자회』가 필사되던 당시, 제주 방언의 한자음이 그러했던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매우 짙다.<sup>(33)</sup>

다음은 제주본의 한자음이 예산본 및 규장각본 『훈몽자회』나 『전운옥편』에

(31) ‘덩(櫻, 上10a) 덩(예) 텅(규) 정(전옥), 소(榲, 上11a) 소(예, 전옥) 등(규), 좌(坐, 上30a) 좌(예, 전옥) 좌(규)’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규장각본의 한자음에 대해 그 출현 배경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단, ‘坐’에 한하여 李基文(1971:77)에서는 규장각본의 한자음 ‘좌’가 東中本 또는 尊經本 『훈몽자회』에도 나타난다는 점으로부터 이를 당시의 俗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32) 李基文·孫熙河 편(1995:225)에는 ‘駱’가, 제주 방언의 口述 천자문에서 ‘노세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3) ‘용(春, 下6a) 송(예, 규) 송(俗용(전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제주 방언의 한자음에 보이는 독특한 음운 변화 또는 다른 참조 문헌과 관련된 變改인지, 아니면 단순히 誤讀이나 誤寫와 관련된 誤字인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 (21) ㄱ. 비(鼎, 中30b) 빅(예, 규, 전옥), 쇼(贖, 下22a) 속(예, 규, 전옥)  
 ㄴ. 부(佛, 中2b) 불(예, 규) 불/필(전옥)<sup>(34)</sup>  
 ㄷ. 과(冠, 中22a) 관(예, 규, 전옥), 과(鞞, 中26b) 판(예, 규, 전옥).  
 이(任, 下31b) 심(예, 규) 임(전옥), 더(籊, 中11b) 덤(예, 규, 전옥).  
 리(第, 中12b) 령(예, 규, 전옥), 비(籊, 中1a) 빙(예, 규) 빈(전옥),<sup>(35)</sup>  
 타(脹, 中33b) 탕(예, 규) 창(전옥)  
 ㄹ. 도(敎, 上7a) 모(예, 규) 무(전옥),<sup>(36)</sup> 비(鑑, 中28a) 미(예, 규, 전옥)

## 5. 맺음말

이제까지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을, 예산본이나 규장각본 『훈몽자회』 및 『전운옥편』의 한자음과 비교하면서 이들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이 어떠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앞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본에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할 때 대체로 규장각본의 한자음이 반영되었는바 이로부터 제주본이, 표기의 면뿐 아니라 한자음의 면에서도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轉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본의 한자음을 예산본이나 규장각본 및 『전운옥편』의 한자음과 비교해보면 이들 문헌 자료 사이에 한자음상의 많은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轉寫者·시대·지역을 달리함으로써 그 轉寫 과정에서 誤讀과 誤寫에 의한 變改, 음운 변화에 의한 變改, 참조 문헌에 의한 變改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본은 한자음

(34) '佛'의 새김은 '부터'인바 한자음 '부'가, 새김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

(35) 제주본에는 '떡느리빙'으로도 나타나므로 필사 과정에서 誤字가 난 것으로 보인다.

(36) '敎'의 한자음은, 『광주천자문』과 『석봉천자문』에 '표'로 나타난다. 또한 제주 방언의 口述 천자문에서도 그 한자음이 '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李基文·孫熙河 편 1995:165).

의 특이성, 성분 한자의 풀 등과 관련되어 규장각본의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따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주본 『훈몽자회』가 규장각본 『훈몽자회』를 저본으로 하였으면서도 『전운옥편』을 한자음 수정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제주본 『훈몽자회』의 한자음 표기에 당시 제주 방언의 한자음이 어느 정도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짙다.  
(필자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權仁翰(1997),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研究』, 대학사.
- 김주필(1994),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서울대).
- 南廣祐 편(1995), 『古今漢韓字典』, 인하대 출판부.
- 方鍾鉉(1954), 「訓蒙字會攷」, 『등방학지』 1.
- 李基文(1971), 『訓蒙字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 李基文·孫熙河 편(1995), 『千字文 資料集 - 地方 千字文 篇』, 박이정.
-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박사학위 논문(전남대학교).
- \_\_\_\_\_ (1997), 「『全韻玉篇』의 正·俗 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 張三植(1996), 『漢韓大辭典』, 교육도서.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 -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鄭承喆(1990), 「〈闡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규장각』 13.
- \_\_\_\_\_ (1994/199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대학사.
- \_\_\_\_\_ (1997), 「濟州本 〈訓蒙字會〉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인하어문연구』(인하대) 3.
- 洪允杓(1985), 「訓蒙字會 解題」, 흥문각.
- \_\_\_\_\_ (1993),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 近代篇 1』, 대학사.

『字類註釋』(건국대 출판부 영인본, 1974)

『全韻玉篇』(박이정 영인본, 1993)

『訓蒙字會』(동양학총서 제1집, 단국대 출판부 영인본, 1971)

『訓蒙字會』(홍문각 영인본, 1985)